

### ■ 긴급진단 / 올해도 장마는 다가오는데... 재해 예방 대책은

# 취약지역 860여 곳... 피해-정비 되풀이

#### 최근 10년간 태풍 등 자연재해로 1200억대 피해 일부 저류지와 배수로 정비사업 아직도 진행 중 매년 범람 위기 겪는 월대천·남수각 해법 절실

제주도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홍수와 태풍 등에 의한 피해액만도 1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비는 2000억원이 넘는다. 내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장마를 앞두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철저한 대비와 근본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재해위험지역 얼마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곳곳에 재해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라일보 취재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월파위험지역, 인명피해위험지역 등은 모두 128곳에 이른다. 여기에 저류지 306곳, 지방하천·소

하천 150개소, 세월교 28개소, 대형공사현장 등이 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처럼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자연재해취약지역은 모두 86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모두 21곳(제주시 10곳, 서귀포시 11곳)이다. 유형별로는 조천읍 북촌리 해동등 침수 위험이 14곳, 해일 우려가 5곳, 유실 위험 1곳(한천), 붕괴 위험 1곳 등이다. 월파위험지역은 18곳(제주시 14곳, 서귀포시 4곳)이다. 한림읍 옹포리 해안가, 외도동 월대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서귀포시는 표선면 신산포구, 범환포구 인근 등이 월파위험지역으로 꼽힌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89개소(제주시 61개소, 서귀포시 28개소)에 이른다.



작년 9월 태풍 마이삭 내습 당시 범람위기에 놓였던 월대천 모습. 사진=한라일보 DB

#### ▶사전에방대책 어떻게

제주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역 발굴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취약지역 점검, 정비를 벌이고 있다.

양 행정시 또한 사전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원도심을 흐르는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저류지 등 정비에도 나

서고 있다. 저류지 17개소에 대한 지장물 제거작업, 지방하천 18개소에 대한 정비 및 배수로 6.7km에 대한 정비를 지난달말까지 마무리했다.

그렇지만 일부 저류지·배수로 정비사업 등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구좌읍 송당·평대·하도·한동지구, 조천읍 와흘·선흘지구, 한경면 청수리 저류지 및 고산·월령 배수로 등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장마 이전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못했고 지난해 태풍 마이삭 내습 시 범람 위기로 긴급대피령까지 내려졌던 월대천 정비사업은 이달 착수해 8월 말쯤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름 집중호우기간과 겹치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때마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4개(흥천, 한천, 병문천, 산지천) 하천 저류지에 대한 정밀점검과 대책, 해마다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를 우려하는 남수각 북계 구조물 철거 여부 등에 대한 해법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저류지·배수로 퇴적물이나 지장물 제거 작업 등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를 서두르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주에도 1만명 이상” 시민단체 21일 기자회견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1만2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 신고자는 0.4%에 불과한 4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도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2021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제품에 노출된 제주주민은 11만4370명이며 이 가운데 잠재적인 건강 피해자는 1만 2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 말 기준 47명(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명 중 1명 꼴이다.

신고를 접수한 후에도 피해 인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의 경우 47명(사망 8명·생존 39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했다. 그러나 26명(55%)만 피해 구제가 인정됐으며 나머지 21명(사망 3명 포함·45%)은 불인정됐거나 미인정됐다.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배·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도 참석했다. 강민성기자

## 도민 10명 중 3명 1차 접종

### 1·2차 접종 완료 도민은 제주인구의 7.7% 접종 마친 80대 숨겨 방역당국 역학 조사

제주지역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80대 노인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인과관계 조사에 나섰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80대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망자는 지난 6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도내 종합병원에 일반병

실 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도민 10명 중 3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제주 전체 인구(67만4635명) 대비 1차 접종 완료자는 19만 2448명(28.5%), 1·2차 접종 완료자는 5만 1693명(7.7%)이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명(제주 1234번)이 발생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34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입도 과정에서 발원자로 분류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위반 1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말과 휴일인 지난 18~20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벌인 결과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 4건·행정지도 8건 등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4곳의 시설 중 3곳(유흥시설 1곳, 식당·카페 3곳)은 모두 밤 10시 이후 영업을 진행하

다 적발됐으며, 1곳(유흥시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달 31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79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19건(행정처분 48건·행정지도 71건)이 적발됐다. 강다혜기자



청정 제주해안, 이들의 손길에... 21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안가에서 제주바다환경지킴이들이 바다에서 떠돌아 온 폐그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미귀가자 신고됐던 60대 삼양포구서 숨진 채 발견

미귀가자로 신고된 60대 남성이 지난 20일 오후 6시32분쯤 제주시 삼양동 포구 테트라포트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새벽 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 됐다.

해경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진정한 제주축 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지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 NAVER DUM    코코리    검색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